

[2020년 2월 띠앗 나눔 진행자용]

1. 성호경

2. 평화의 기도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3. 말씀 묵상 -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2코린 2,14-16)

우리는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분께서는 늘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우리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내가 우리를 통하여 곳곳에 퍼지게 하십니다.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나 멸망할 사람들에게나 우리는 하느님께 피어오르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죽음으로 이끄는 죽음의 향내고,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는 생명으로 이끄는 생명의 향내입니다.

- 말씀을 읽은 후 진행자는 청년들이 말씀내용을 묵상할 수 있도록 시간을 잠시 주세요.

4. '냄새와 향기' 에 대해 읽고 함께 나눠요.

- 1)
- 2)
- 3)

- 앞의 4번 내용을 읽은 후 나눔 질문에 대해서 청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잠시 주세요.

이 후 청년들이 함께 나눔 질문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진행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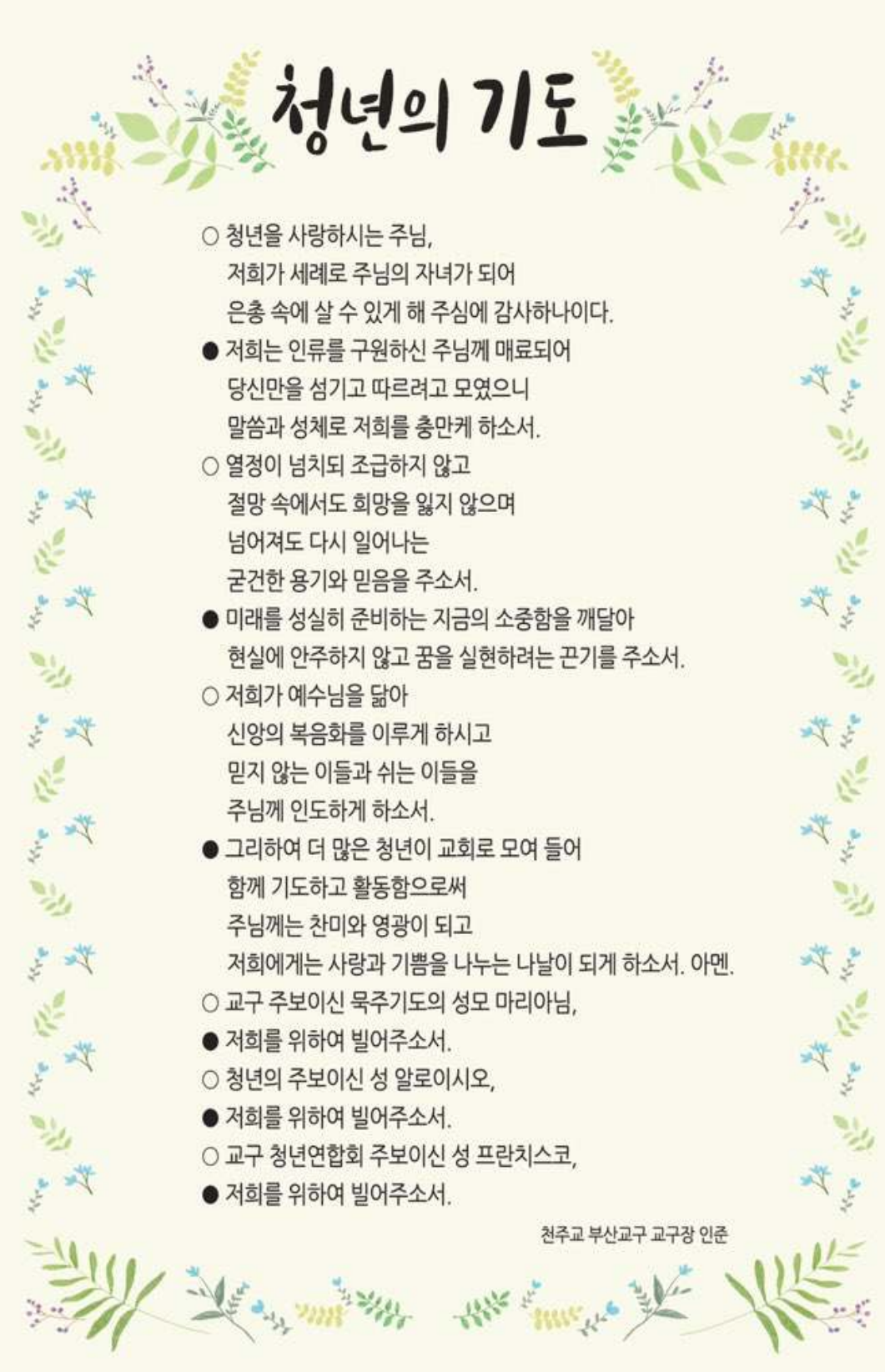
5. 활동하기

- 주변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따뜻한 말 건네기

6. 청년의 기도

- 뒷장에 '청년의 기도' 가 준비되어있어요.

7. 성호경



청년의 기도

- 청년을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가 세례로 주님의 자녀가 되어
은총 속에 살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하나이다.
- 저희는 인류를 구원하신 주님께 매료되어
당신만을 섬기고 따르려고 모였으니
말씀과 성체로 저희를 충만케 하소서.
- 열정이 넘치되 조급하지 않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굳건한 용기와 믿음을 주소서.
- 미래를 성실히 준비하는 지금의 소중함을 깨달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꿈을 실현하려는 끈기를 주소서.
- 저희가 예수님을 닮아
신앙의 복음화를 이루게 하시고
믿지 않는 이들과 쉬는 이들을
주님께 인도하게 하소서.
- 그리하여 더 많은 청년이 교회로 모여 들어
함께 기도하고 활동함으로써
주님께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에게는 사랑과 기쁨을 나누는 나날이 되게 하소서. 아멘.
- 교구 주보이신 목주기도의 성모 마리아님,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청년의 주보이신 성 알로이시오,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교구 청년연합회 주보이신 성 프란치스코,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천주교 부산교구 교구장 인준